

[비상]한미쇠고기 추가논의 '완전사기'

8 노동과세계 | © 승인 2008.06.25 13:31

네티즌 시민들 25일 오후 3시 경북구역 집결 '한미쇠고기협상' 장관고시저지 총력투쟁 돌입

"국민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 미국산 소고기는 믿고 먹어도 됩니다?"

"6월 20일 미국에서 쇠고기 업자 대표들이 만나 30개월령 미만만 일단 수입하기로 자율 결의한 문서가 미국에서 발표고,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기에 불과하다"며 네티즌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네티즌 NYCboi씨는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 US Meat Export Federation) 서신을 찾아 번역 공개하면서 서신 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 내용은 "▲민간업자들인 미국 육류협회는 일단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출. ▲미 정부가 보증해 주는 한국 QSA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한 과도기적 장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수출되기 시작하면 한국 QSA는 즉시 소멸 ▲한국 장관고시 이뤄지면 즉시 소통 프로그램 만들어 한국민 오해에 대처, 모든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 ▲미국 목축업자들 스스로의 오해 불식 노력에 미국과 한국정부 협조 요청"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출하는 것은 미국 업자들 자율에 맡긴 것이기때문에 재협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번 쇠고기 협상단이 미국에 와서 도대체 무슨 결론을 도출해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 원문을 보고 또 한국 정부의 발표를 비교해보면 그 결과는 바로 사기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원문자료 주소: <http://nystory.ohpy.com/153528/9>)"고 이명박 정권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다음은 미국육류협회 서신 번역 전문이다.

Dear Secretary Schafer and U.S. Trade Representative Schwab:

We are writing to you today on behalf of the U.S. beef industry regarding access to the Korean market. The U.S. beef industry recognizes that concerns have been expressed in Korea about the safety of U.S. beef from cattle thirty months of age and older and that these views are having an impact on perceptions of U.S. beef in the Korean market.

우리는 여러분께 오늘 미국 쇠고기 업계를 대신하여 한국 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편지를 씁니다. 미국 쇠고기 업계는 30개월령 이상의 미 쇠고기에 대해 한국 내에서 염려들이 표출되고 있음과 이런 견해들이 한국 시장 내 미 쇠고기 인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While the U.S. beef industry is confident that all beef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is safe regardless of age, at the request of Korean meat importers to address consumer concerns, the U.S. beef industry is prepared to limit exports to Korea to on-ly products from cattle less than thirty months of age under a program verified by USDA as a transitional measure to full market opening consistent with OIE guidelines.

미국에서 생산된 모든 쇠고기는 월령을 막론하고 안전하다고 미 쇠고기 업계는 확신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우려에 대해 의견 표명하는 한국 육류 수입업자들의 요청을 따라, 미 쇠고기 업계는 OIE 기준에 부합하도록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토록 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미 농무부가 검증해 주는 이 프로그램 하에서 오직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을 한국으로 수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To facilitate this commitment, the U.S. beef industry requests that, as soon as the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signed on April 18, 2008) become effective, the U.S. Government establish an age 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 (QSA) Program for Korea that will be in place until the conditions in the Korea market

support the restoration of exports of all U.S. beef products to Korea.

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 쇠고기 업계는, 미국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수입위생조건(2008년 4월 18일 서명)이 효력을 발생하자마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위한 월령 검증 QSA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요청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시장 조건들이 한국으로의 모든 쇠고기 수출의 회복을 이끌 때까지만 지속될 것입니다.

Following publication by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the U.S. Meat Export Federation will undertake a communication program to respond to questions that have been raised about the safety of U.S. beef and address the concerns that have been expressed in Korea, and we request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U.S.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Korea in this effort.

대한민국의 수입위생조건 관보게재를 따라, 미 육류수출업계는 미국 쇠고기의 안전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고 한국에서 표출된 염려들에 대처하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 신설에 착수할 것이며, 우리는 이런 노력에 대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합니다.

The U.S. beef industry respects and is responsive to the marketplace, consumer demand, and the principle of consumer choice. We value our relationships with our Korean customers and are committed to meeting their needs and addressing their concerns as U.S. beef returns to the Korean market.

미 쇠고기 업계는 시장, 소비자 요구, 그리고 소비자 선택의 원칙 등을 존중하고 또한 이에 대해 책임있게 응합니다. 우리는 한국 소비자와의 관계를 가치 있게 보며, 그들의 필요에 부합하고, 한국 시장에 다시 등장하는 미국 쇠고기에 대한 그들의 염려들에 대처하는데 헌신되어 있습니다. (△자료: <http://www.usmef.org>)

한편, 네티즌들은 온라인을 통해 25일 오후3시 경북구역(3호선) 총집결을 통한 장관고시 총력저지투쟁을 호소하는 등 폭발적인 분노글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